

## 요한복음 7:15의 분사구 μή μεμαθηκώς의 새로운 이해

김주한\*

### 1. 서론

요한복음 7:15는 7:10-23(특별히, 14-18)의 문맥에서 종종 예수의 전지(全知)를 가리키는 본문으로 설교되곤 한다. 비록 이러한 사실이 원문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국역 성경들은 그러한 측면을 암시한다(필자 강조):<sup>1)</sup>

<표 1> 요 7:15

NTG <sup>28</sup>	ἐθαύμαζ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λέγοντες· πῶς οὗτος γράμματα οἶδεν μὴ μεμαθηκώς;
『개역개정』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표준』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하고 말하였다.
『공동개정』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듯 아는 것이 많을까?’ 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표 1>의 대표적인 세 가지 국역 성경들은 분사구 μή μεμαθηκώς를 양보절로 해석될 여지를 준다. 물론 비록 ‘~거늘’ 혹은 ‘~는데’ 어미 자체가 양보의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sup>2)</sup> 문맥 내에서 그러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즉, ‘이 사람은’ 배움이 없다는 말과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직접 의문형을 ‘~거늘’ 혹은 ‘~는데’로 연결하여, 특별히 배우지 못함과 앎이라는 두 대조적인 개념이 합쳐짐으로써 그러한 의미를 형성하게 되었다.

\* 총신대학교 강사, 성경언어/신약학.

1) 향후 특별한 언급을 없다면 국역 성경은 『개역개정』을 사용한다.

2) -는데: 「어미」(‘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판: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그러나 이러한 번역과 해석은 요한복음 7:14-18의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문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자의 눈에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구심 혹은 의혹을 담고 있는 숙의적 질문 (deliberative question)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경우 분사구 μὴ μεμαθηκώς는 조건절로 해석되고, 의문사 πῶς는 숙의적 질문을 이끄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문맥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는다. 즉, 16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훈의 소유권(출처)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이때 자신의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 즉 신적 소유기원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16절의 대답의 배경이 되는 15절은 예수의 답변(즉, 신적 소유권)의 배경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질문의 핵심은, 배우지 않았음에도 예수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선가/누구에게인가 배웠기에 알고 있는 것 아닌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전자의 질문을 견지하면 16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반면, 후자로 본다면 유대인들의 (의구심 혹은 의혹을 담고 있는) 질문은 예수의 놀라운 가르침과 관련해 그 가르침의 출처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의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ἡ ἐμὴ διδασχὴ οὐκ ἔστιν ἐμή) 하나님의 것(ἀλλὰ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이라 답변과 잘 조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서 언급한 국역 성경 구절들은 분사구 μὴ μεμαθηκώς를 양보적의 의미로 해석함으로 유대인과 예수의 대화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요한복음 7:15의 분사구 μὴ μεμαθηκώς의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을 위한 근거 자료들로 필자는 두 가지 차원의 접근들을 시도할 것이다: 언어적 용법과 문맥, 이 두 차원의 연구를 통해 필자는 요한복음 7:14-18 단락의 온전한 의미를 드러낼 뿐 아니라, 요한복음 7:15의 정확한 번역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문법적 설명 및 요한복음의 문체

대다수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원-헬라어 작품임에 동의한다.<sup>3)</sup> 이 말은, 비록 요한복음 자체가 셈어의 영향이 짙은 코이네 헬라어에 속할지라도,<sup>4)</sup> 완전한

3) G. R. Beasley-Murray, 『요한복음』,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01), 63. 참조. E. Haenchen, *John 1*, R. W. Funk, trans., vol.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52-66; R. E. Brown, 『앵커바이블 요한복음 I: 표적의 책』, 최홍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185-188.

4) E. Haenchen, *John 1*, 56. 참조.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30.

헬라어로 기록되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헬라어의 일반적인 문법적 기술은 요한복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많은 헬라어 문법서들의 기초가 주로 고전 헬라어 작품에 두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요한복음은 일단의 셈어적 색채를 지닌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전 헬라어와 코이네 헬라어에 대한 근본적 차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고전 헬라어의 기준을 코이네 헬라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이 두 헬라어의 범주들이 서로 대치되거나 서로를 배격하고 있다는 식의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고전 헬라어로부터 코이네 헬라어로의 진행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정치-문화적 상황 가운데 일어난 헬라어의 언어적 변화에 속한 것이다.<sup>5)</sup> 그렇기 때문에 고전 헬라어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이 코이네 헬라어 내에서 변화했거나 일괄되게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sup>6)</sup> 그러나 이는 고전 헬라어 작품들 내에서도 그렇다. 즉, 문법 자체가 한정된 저자들의 작품들에서 귀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에 중심된 저술을 위해 선택된 책들 밖의 자료들에는 예외로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게 된다. 하물며 수백 년이 지난 헬라어 작품에서는 더할 것은 예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기에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이 더 강한 특징으로 남는다.<sup>7)</sup> 특별히, 고전 헬라어와 코이네 헬라어 사이의 간격은 코이네 헬라어와 현대 헬라어의 간격보다 좁다. 그리고 코이네 헬라어 기간에도 고전적 작가들이 많이 속해 있으며, 또한 **아티시즘(Atticism)**이나 **아시아니즘(Asianism)**과 같은 문체 복원 운동들을 통해 고전 헬라어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sup>8)</sup>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탈문법적 문장을 쓰거나 연습실에서 습작된 작품들이 아니라면 단순히 문체적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헬라어 기본 문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sup>9)</sup>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우선 헬라어 문법서들에서 ‘부정어+분사’ 구문에 대한 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요한복음 내의 ‘부정어+분사’ 구문을 살펴봄으로써 요한복음에서의 이 구문의 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5) 참조. D. B. Wallace, *Greek Grammar*, 14-17; 김주한, “신약 성경 헬라어의 약사”, 구자용 외 편, 『성서의 세계』(군포: 아람성경원어 연구원, 2012), 340-349.

6) 참조. D. B. Wallace, *Greek Grammar*, 19-20; 김주한, “신약 성경”, 354-355.

7) 김주한, “신약 성경”, 340-341.

8) Ibid., 345-346.

9) 사실, 헬라어 문법의 급격한 변화는 주후 약 7세기 이후 비잔티움 제국에서 구어체로 문어체를 대신하려는 조류에 의해 야기되었다. 참조. C. C. Caragounis,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Morphology, Syntax, Phonology, and Textual Transmission* (Grand Rapids: BakerAcademic, 2006), 21-60(특별히, 22의 도표를 참조하라); R. Browning, *Medieval and Modern Greek*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1969).

## 2.1. 분사의 용법

요한복음 7:15에 등장하는 분사구 μή μεμαθηκώς는 동사 μαθηθῶν의 현재완료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이 비-직설법 동사들을 부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부정어 μή로 구성된 형태이다. 이 분사구는 분사의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이 분사구는 주동사 οἶδεν과 관련하여 부사절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때 이 (부사적) 분사는 문맥에 따라 8가지의 용법들(시간, 방법, 수단,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중 한 가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맥상 꼭 한 가지의 해석만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용법들의 보편성과 특수성 때문에 가끔씩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D. B. 월레이스(D. B. Wallace)가 소유격 용법의 선택을 위해 사용한 방법, 즉 협소하고 특수한 용법을 먼저 적용해 보고 문맥상 맞지 않을 경우 점차 적용 범위가 큰 용법에 맞춰 해석하는, 문맥상 보다 작은 범위에 맞는 해석을 일순위로 그리고 보다 큰 범위에 맞는 해석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본다.<sup>11)</sup> 즉,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중에 문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특수한 경우가 최우선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한편, 고전 헬라어에서는 부정어 οὐ와 μή가 부사적 분사와 사용될 경우 그 경우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곤 했다. ‘οὐ+분사’ 구문의 경우 조건절을 제외한 다른 용법들(특별히, 대조나 양보의 용법들)로 사용된 반면, ‘μή+분사’ 구문의 경우 조건절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sup>12)</sup>

물론, 이러한 구분의 엄격성은 코이네 헬라어에서 약화되었다. 오히려, 코이네 헬라어에서는 οὐ와 μή의 사용 구분이 뒤따라오는 동사가 직설법이나 아니면 비-직설법이나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되는 경향, 즉 οὐ는 직설법 동사형과 사용되고 μή는 비-직설법 동사형과 사용된다고 본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

10) 분사의 용법에 대한 약술은 유은결, “국역성서 헬라어 분사 구문 처리에 관한 소고”, 『성경 원문연구』 25 (2009), 100-101, 104를 참조하라.

11) D. B. Wallace, *Greek Grammar*, 79: ‘이[sc. 묘사적 소유격]는 소유격의 범주에 있어 “잡동사니” 소유격, “반침판” 소유격, “블랙홀” 소유격이다. 그것은 많은 소유격들을 묘사의 개념으로 몰아넣고자 한다! 어떤 면에서 모든 **형용사적 소유격들은 묘사적이다. 그러나 어떤 형용사적 소유격도 묘사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비록 모든 형용사적 소유격이 그 특성에 있어 묘사적이지만, 있다손 치더라도 아주 적은 수만이 이 특별한 용법의 범주에 속한다. 이 용법은 진정 (형용사적) 소유격의 기본 개념을 이룬다. 이는 어떤 특별한 뉘앙스를 제공하는 문맥이나 어휘나 다른 문법적 특성들이 없을 때와 같이 다른 언어적 동기들에 의해 영향 받지 않을 때 종종 사용되는 소유격의 용법이다.’

12) H. W. Smyth and G. M. Messing,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469(§ 2067), 619(§ 2733).

13) M. Zerwick, *Biblical Greek illustrated by Examples*, J. Smith, trans.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94), 148(§ 440); 참조.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 W. Funk, trans. (Chicago and

때로 신약 성경에서 기계적 적용에서 벗어나는 예들을 발견한다(필자 강조):

<표 2> 요 10:12

NTG <sup>28</sup>	ὁ μισθωτὸς καὶ οὐκ ὢν ποιμὴν, οὐ οὐκ ἔστιν τὰ πρόβατα ἴδια, θεωρεῖ τὸν λύκον ἐρχόμενον... (삯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b>아니라</b>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참조. 갈 4:27	γέγραπται γάρ· εὐφράνθητι, στείρα ἢ οὐ τίκτουσα, ῥήξον καὶ βόησον, ἢ οὐκ ᾠδίνοουσα... (기록된 바 <b>잉태하지 못한 자여</b> 즐거워하라 <b>산고를 모르는 자여</b> 소리 질러 외치라...)

위의 예들에 대해 다양한 설명들이 있다. 혹자는 부정어의 고전적 용법의 잔재로 본다.<sup>14)</sup> 다른 이들은 예외적인 용법들로 본다.<sup>15)</sup> 또 다른 이들은 보다 면밀한 구문론적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sup>16)</sup>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러한 예들은 코이네 헬라어에서 부정어 사용의 기계적 사용의 일괄적 적용에 대해 주의를 요한다.<sup>17)</sup>

## 2.2. 요한복음의 문체: 분사의 서술적 용법의 특징

요한복음에서 부정어와 함께 등장하는 분사의 서술적 용법에 대한 분명한 예는 요한복음 7:15뿐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부정어와 서술적 용법이거나 그 용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분사가 함께 사용되는 예들은 3개 더 있다(요 10:12; 12:48; 15:2)(필자 강조):<sup>18)</sup>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222(§ 430); 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55.

14)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222-23(§ 430).

15) 참조. C. F. D. Moule, *An Idiom*, 155-56.

16) M. Zerwick, *Biblical Greek*, 148(§ 440), 각주 2번.

17) 참조. 갈라디아서 4:27의 예는 구약 70인경의 인용인데, 이것이 인용될 때 저자 요한에게 있어 οὐ의 기능이 인지되어 그대로 인용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인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18) 요한복음에서 부정어들이 분사와 사용된 예들을 총 12회이다(3:18; 5:23; 6:24; 7:15, 49; 9:39; 10:1, 12; 12:48; 14:24; 15:2; 20:29). 이들 중 분사가 부정어 μή와 함께 독립적 혹은 관형적 용법으로 사용된 예들은 요한복음 3:18; 5:23; 6:24; 7:49; 9:39; 10:1; 12:48; 14:24; 15:2; 20:29이다. 이 형태로 분사가 분명히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예는 요한복음 7:15뿐이다(특별히, 아래에서 논의할 요한복음 12:48은 독립적 용법으로, 요한복음 15:2은 관형적 용법으로 사용된 예로 여겨지나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한편, 분사가 οὐ와 함께 독립적 용법

<표 3>

요 10:12	ὁ μισθωτὸς καὶ οὐκ ὢν ποιμήν, οὗ οὐκ ἔστιν τὰ πρόβατα ἴδια, θεωρεῖ τὸν λύκον ἐρχόμενον... (삯꾼은 목자가 <b>아니요</b>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요 12:48	ὁ ἀθετῶν ἐμέ καὶ μὴ λαμβάνων τὰ ῥήματά μου ἔχει τὸν κρίνοντα αὐτόν...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b>받지 아니하는</b>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요 15:2	πᾶν κλῆμα ἐν ἐμοὶ μὴ φέρον καρπὸν αἴρει αὐτ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b>맺지 아니하는</b>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표 3>에 제시된 예들은 보는 견지에 따라 그 용법이 요한복음 7:15의 분사의 용법과 차이가 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해당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살펴보고자 한다.

### 2.2.1. 요한복음 10:12 설명

요한복음 10:12의 분사구 οὐκ ὢν는 요한복음 중 난문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코이네 헬라어의 분사의 부정어법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참조. 2.1). 그러나 이 분사구, 특별히 부정어에 대한 이본 읽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사구 οὐκ ὢν는 원독법이라는 점이 부인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분사구는 헬라어의 비-직설법(즉, 분사) 어휘의 부정법의 도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분사구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시도되었는데, 특별히, 분사구 앞에 등장하는 관사 ὁ에 한정된다는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코이네 헬라어의 도식, 즉 비-직설법 동사류의 부정어는 μή라는 것의 예외로 여겨 버렸다.<sup>19)</sup> 물론, 보다 신중한 학자들은 이 예를

으로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는 예로는 요한복음 10:12가 있다(그러나 사실 향후 논의에서 보듯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과 관련해 독립적 혹은 관형적으로 사용된 부정된 분사구들은 이차적이기에 다루지 않는다(3:18; 5:23; 6:24; 7:15, 49; 9:39; 10:1; 14:24; 20:29).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요한복음 10:12; 12:48; 15:2의 경우 그 용법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유일한 본문들이기에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9) L.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92), 510, 각주 39번. 참조. J. H. Moulton and N. Turner,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Syntax*, vol. 3 (Edinburgh: T. & T. Clark, 1963), 284-285.

고전 헬라어 문법의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했다. 즉, 그들은 특정인을 지시하는 부정어 οὐ와 함께 쓰이는 분사의 관형적 용법과 비-특정인을 지시하는 부정어 μή와 함께 쓰이는 관형적 용법을 고려하여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sup>20)</sup> 그러나 학자들은 비록 고전 헬라어 문법의 도식이 제안될 수 있으나 그 해석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sup>21)</sup>

그러나 이 고전적 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해석법이 존재한다. 그것은 분사구 καὶ οὐκ ὦν ποιμήν가 분사의 관사 ὁ와 함께 사용된 독립적 용법이 아니라, 헬라어 문학적 기법들 중 하나인 부가적 용법(parenthesis)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앞선 명사 등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구가 삽입되는 것은 헬라어 문체의 일반적인 용법으로 요한 문헌에서도 종종 나타난다.<sup>22)</sup> 이렇게 볼 경우, 이 형태는 요한복음 7:15와 관련되며, 동시에 고전적 용법의 예 혹은 어법의 모방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2.1), 이는 분사의 서술적 용법들 중에서 조건적 용법(이때 부정어 μή를 사용함)을 제외한 다른 용법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이 예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설명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계속되는 관계 대명사절(οὐ οὐκ ἔστιν τὰ πρόβατα ἴδια)이 ποιμήν이 아니라 μισθωτός를 묘사해 주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 구절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는 <표 3>에서 제시한 갈라디아 4:27처럼 구약의 인용을 암시하는 경우일 수 있다(참조. 롬 9:25; 벧전 2:10; 『클레멘트 2서』, 2.1).<sup>23)</sup> 비록 70인역에 요한복음 10:12의 표현과 문자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개념을 직설법 형태로 표현한 예들이 발견된다.<sup>24)</sup> 한편, 우리가 G. K. 비얼(G. K. Beale)이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표현 연구에서(비록 요한계시록에 제한된 연구지만) 어법상 틀린 표현이 나올 경우 그것은 단순 탈문법이 아닌 구약 성경을 암시하는 저자의 장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견해를 참조해 본다면,<sup>25)</sup> 동일한 요한 문헌에 속한 요한복음의 이 예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비얼의 연구가 일차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국한된다는 점과 또한 언어적으로 보다 좋은 설명이 있는 상

20) 참조. H. W. Smyth and G. M. Messing, *Greek Grammar*, 619(§ 2734).

21)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430(§ 430[1]).

22) 참조. Ibid., 242-43(§ 465[1]).

23) L. Morris, *The Gospel*, 510, 각주 39번.

24) 예. ὡσεὶ πρόβατα οἷς οὐκ ἔστιν ποιμήν(70인역 민수기 27:17; 역대하 18:16. 참조. 『유딧』 11:19) 및 ὡς ποιμνιον ᾧ οὐκ ἔστιν ποιμήν(70인역 열왕기상 22:17).

25) G. K. Beale, "Solecisms in the Apocalypse as Signals for the Presence of Old Testament Allusions: A Selective Analysis of Revelation 1-22", C. A. Evans and J. A. Sanders, (eds.), *Early Christian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s of Israel: Investigations and Proposal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421-446;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9), 100-103(특별히, 103).

황에서 주석적 설명을 선택하는 것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고전적 용법의 재현 혹은 모방으로 보는 견해보다 설득력이 약하다.

### 2.2.2. 요한복음 12:48 설명

요한복음 12:48은 분사구의 부정어가 μή라는 점을 제외하고 요한복음 10:12의 분사구와 아주 유사하다. 부정어 μή가 사용된 것은 코이네 헬라어의 특징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따라서 요한복음 10:12와는 다르게 관사 ὁ에 한정된 분사의 관형적 용법으로 봐도 별 상관이 없다. 사실 ὁ ἀθετῶν ἐμέ와 μή λαμβάνων τὰ ῥήματά μου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며, 요한복음 10:12의 경우에서처럼 καὶ μή λαμβάνων τὰ ῥήματά μου를 첨가적 용법으로 이해해 서술적 용법으로 본다 할지라도, 문맥상<sup>26)</sup> 분사구 μή λαμβάνων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 경우 요한복음 10:12와 관계하여 이는 고전적 용법에 부합하는 형식이 된다.

물론, 요한복음 12:48의 분사구는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분명히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럴 경우도 이 분사는 불특정인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분사 μή가 사용되는 것은 고전적 용법에도 일치하게 된다.<sup>27)</sup> 따라서 단정할 수 없지만, 만약 다른 예들의 지지가 있다면, 요한복음 12:48은 저자 요한이 분사의 용법(서술적 용법으로 볼 경우도 포함하여)에 있어 고전적 용법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적어도 고전 문체를 모방했다는 점을 지지해 준다.

### 2.2.3. 요한복음 15:2 설명

요한복음 15:2의 예는 비-직설법 동사류들을 부정하는데 부정어 μή가 쓰인 좋은 예들이다. 이 측면은 코이네 헬라어의 부정 용법의 기계적인 적용의 예일 수 있다. 구문상 분사구 μή φέρον καρπὸν가 선행하는 명사 κλῆμα를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형용사적 위치의 관점에서 제2위치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sup>28)</sup> 이는 분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 모두가 관사 없이 사용된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사구가 서술적 위치에서 명사 κλῆμα와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필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

26) 블라스와 테브룬너(Blass and Debrunner)는 서술적 분사와 문장의 나머지 요소들 간의 관계가 분사 자체로부터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미래분사의 경우 제외), 문맥으로부터 유추되어야 한다고 본다(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215[§ 417]). 이 견해는 코이네 헬라어에서의 전형적인 설명이다.

27) 참조. H. W. Smyth and G. M. Messing, *Greek Grammar*, 619(§ 2734).

28) D. B. Wallace, *Greek Grammar*, 306. 그러나 명사 앞에도 관사가 없다는 점에서 제2위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밝혀준다.

결정이 어떠한든 중요한 점은 이 분사구는 문맥상<sup>29)</sup> 서술적 용법의 경우 조건을 혹은 관형적 용법일 경우 불특정인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설명은 고전 헬라어 용법에 일치한다. 특별히, 이는 서술적 용법으로 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관형적 용법으로 볼 때로 그렇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30)</sup> 따라서 이 예는 고전적 용법의 예 혹은 모방의 예라고 볼 수 있다.

#### 2.2.4. 요약

위의 예들을 고려해 볼 경우, 요한복음 7:15의 분사구  $\mu\eta\ \mu\epsilon\mu\alpha\theta\eta\kappa\omega\varsigma$ 는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예들처럼 고전적 용법 혹은 모방 문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결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안은 무엇보다 요한이 분사의 부정 용법에 있어서 ‘οὐ + 분사’ 구문과 ‘μή + 분사’ 구문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sup>31)</sup>에 의해 지지 받는다. 더 나아가, 비록 고전적 용법 구분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아래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문맥상 이 분사구는 조건절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요한복음 7:15의  $\mu\eta\ \mu\epsilon\mu\alpha\theta\eta\kappa\omega\varsigma$  역시 분사 부정의 고전적 용법이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모방의 결과(즉, 요한의 문체의 특징)로 보아야 한다. 그럴 경우, 이 분사구는 무엇보다 조건절로 번역되어야 한다.

### 3. 문맥적 의미

문맥적 의미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요한복음 7:15가 포함되어 있는 단락, 즉 근접 문맥(요 7:10-24)이다. 이 단락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분사구  $\mu\eta\ \mu\epsilon\mu\alpha\theta\eta\kappa\omega\varsigma$ 의 어떤 해석이 문맥에 적절한가를 물어야 한다. 둘째, 요한복음 7:15가 포함되어 있는 단락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요한복음의 관심 혹은 주제와 관련하여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사항들과 관련하여, 이 단락에서 필자는 우선 요한복음 7:15의 의미를 주석을 통해 근접 문맥 내에서의 규정하고자 한다(3.1). 그리고 나서, 재해석된 내용이 요한복음에 진술된 사항들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특별히 예수님-하나님-유대인들의 관계성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3.2). 왜냐하면 요한복

29)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215(§ 417).

30) H. W. Smyth and G. M. Messing, *Greek Grammar*, 459(§ 2067), 618-19(§ 2729).

31) 2.2.2의 관형적 용법으로 사용된 예도 참조하라.

음 7:15의 내용은 예수의 가르침의 기원에 대한 논쟁으로, 그 기원에 있어 예수는 하나님께로, 유대인들은 일반 지식에 호소하는 논조를 갖기 때문이다.

### 3.1. 근접 문맥(요한복음 7:10-24[특별히, 14-18]) 내에서의 요한복음 7:15의 의미

요한복음 7:15가 포함되어 있는 근접 문맥은 요한복음 7:10-24이다. 그러나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는 요한복음 7:14-18에 지극히 한정되므로 주로 이 구절에 한정하여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단락은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발생한 유대인들과의 대화 장면을 보고한다. 이를 간단하게 도표화 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7:10-13	배경
7:14-18	예수님 가르침의 근원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
7:19-24	지속적 대화

이 문단을 바로 해석할 중요한 단서는 요한복음 7:15와 16절의 질문과 대답의 관계이다. 이 대화의 요지는 16절의 예수의 답변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즉, 나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다!<sup>32)</sup>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는 현행의 국역들은 중요한 질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7:15의 분사구의 번역을 잘못함으로써,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7:16 이하의 예수님의 답변과 앞선 질문이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즉, 현행의 번역본들은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개역개정』)로 되어 있어,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과 ‘글’(『개역개정』)<sup>33)</sup>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표현했다.<sup>34)</sup> 그런

32) 리델보스(Ridderbos)는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것으로 제시한다(H. Ridderbos, *The Gospel of John: A Theological Commentary*, J. Vriend, trans. [Grand Rapids: B. Eerdmans Publishing, 1997], 262-263).

33) 학자들은 『개역개정』에서 ‘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γράμματα가 단순한 문자를 넘어선 의미, 즉 학식이나 지식을 의미한다고 본다(L. Morris, *The Gospel*, 405, 각주 34번;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1], 311;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1966], 312). 다른 국역들은 이러한 해석을 반영한다. 예, ‘학식’(『표준』), ‘아는 것’(『공동개정』). 참조. T. J. Kraus, “John 7:15B: ‘Knowing Letters’ and (Il)literacy”, *Ad Fontes: Original Manuscripts and their Significance for Studying Early Christianity-Selected Essays* (Leiden; Boston: Brill, 2007), 171-183.

34) 고전 헬라어 용법에서 이 경우 해당 분사에는 μή가 아닌 οὐ가 부정어로 와야 한다. 그러나

데 이러한 질문에 예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로 대답하신다(요 7:16). 이 대답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의미 규정을 위해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문은 아래 <표 5>와 같다(필자 강조):

<표 5> 요 7:16

NTG <sup>28</sup>	ἀπεκρίθη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ἡ ἐμὴ διδασχὴ οὐκ ἔστιν ἐμὴ ἀλλὰ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	---

필자가 강조한 부분을 보면(ἡ ἐμὴ διδασχὴ οὐκ ἔστιν ἐμὴ ἀλλὰ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주어와 관련된 표현들인 ἐμὴ와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이 οὐκ... ἀλλά...의 대조구 안에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소유 형용사의 쓰임과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격의 쓰임이다. 이 두 표현은 특별히 소유자에 강조를 두는 표현들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던(요 7:15) 가르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는 가르침의 원-소유자(즉, 근원)에 대한 것이다(요 7:16).<sup>35)</sup> 즉, 현재 가르치고 있는 예수 자신인 ‘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나를 보내신 이’)을 대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sup>36)</sup>

그렇다면 이러한 답변을 위한 질문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가르침의 소유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는 답변에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즉,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질문은 내 가르침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타인의 것이라는 답변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그 질문에는 ‘나는 배움보다는 계시를 받는다’든가 하는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답변은 지식의 원-소유자(즉,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응당 질문은 가르침의 기원 혹은 출처와 관련되어야 한다.<sup>37)</sup> 그리고 이러

코이네 헬라어라는 전방에서 볼 때, 이는 문맥에 의존하므로 일단은 지나가자.

35) 카슨(Carson)은 이 표현을, 유대 전통에서 모든 선포는 보통 선행자의 연구나 전통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만’(arrogance), 즉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위협에 빠진 자유로운 영혼의 표현이라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창의적인 어정뱅이’(inventive upstart)가 아님을 밝힌 것으로 본다(D. A. Carson, *The Gospel*, 312). 참조. A. J. Köstenberger, *Joh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233; D. Etes, *The Questions of Jesus in John: Logic, Rhetoric and Persuasive Discourse* (Leiden; Boston: Brill, 2013), 73.

36) 참조. C. K. Barrett, *The Gospel according St. John: An Introduction with Commentary and Notes on the Greek Text*, 2<sup>nd</sup> ed. (London: SPCK, 1978), 317.

37) ‘장면 I의 서두(15절)는 예수님이 공인된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

한 질문은 양보절로 해석되어온 분사구 μή μεμαθηκώς를 조건절로 재해석(즉, ‘만약 그가 배우지 않았더라면’)하면 언어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때 전체 문맥에 맞춰 주절 πῶς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 속의적 의문문으로 해석하면 아래 <표 6>처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필자 강조):<sup>38)</sup>

<표 6> 요 7:15

사역	만약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글을 알겠는가!(즉, 누군가의 제자 [혹은 독학자]이다 <sup>39)</sup> )
[참조]	
『개역개정』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즉, 기적이다)

<표 6>의 사역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답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나는 누군가에게 배워 혹은 스스로를 깨우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훈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요 7:16)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요 7:17). 이러한 해석을 통해 볼 때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은,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어디선가 비전(秘傳)을 배웠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배워서 자신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과 권위에 의구심 혹은 의혹을 가진 것이고,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논의하는 가르침의 기원에 대해 밝히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sup>40)</sup>

한편, 문맥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유대인들의 정황에 대해서도 잠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정황은 이렇다. 예수께서 명절 중간에 성

상적인 선생이라는 혐의에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의 대답(16절)은 자신은 공인된 스승 즉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다'(R. E. Brown, 『앵커바이블 요한복음 I』, 715-16). 참조. 슬래터(Schlatter)는 가르침(διδάσκειν)과 배움(μαθητεύειν)의 관계를 뗄 수 없는 것이라 지적한다(A. Schlatter, *Der Evangelist Johannes- Wie Er Spricht, Denkt und Glaubte: Ein Kommentar zum Vierten Evangelium*, dritte Aufl. [Stuttgart: Calwer Verlag, 1960], 191).

38) 조건절과 함께 사용된 의문사 πῶς의 속의적 질문의 예는 D. B. Wallace, *Greek Grammar*, 698을 참조하라.

39) ‘유대인들을 놀랐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랍비적 학문/가르침(rabbinic letters)이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다’(D. L. Bock, *Jesus according to Scripture Restoring the Portrait from the Gospel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457).

40) ‘그러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드러낸 후에 예수와 그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미스터리로 남겨졌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J. Painter, *The Quest for the Messiah: The History, Literature and Theology of the Johannine Community*, 2<sup>nd</sup> ed.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292).

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는데(ἐδίδασκεν),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οὖν) 유대인들이 놀라게 되었다(ἐθαύμαζον)(요 7:14-15상). 그리고 예수에 대해 유대인들이 언급한 내용이 <표 6>의 내용이다. 유대인들과 예수의 대화가 진행되는 정황은 두 가지를 전제한다. 첫째, 예수는 선생(랍비?)으로 여겨졌다. 둘째, 예수의 가르침은 놀라웠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의 선생(?)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우선, 후자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헬라어 동사 θαυμάζω는 일반적으로 놀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이다(참조. 마 8:27; 갈 1:4). 그런데 이 표현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유대인들의 반응에 사용된 것은 그들의 즉각적인 놀람의 반응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역개정』에는 분사 λέγοντες와 동시 동작으로 ‘놀라게 여겨 이르되’라고 번역되어, <표 6>의 질문의 내용이 놀라운 반응 자체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르되’라고 번역된 분사 λέγοντες로 이끌린 문장이 놀람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놀람 이후의 유대인들의 모종의 합의로부터 나온 질문의 총체 혹은 핵심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sup>41)</sup> 즉, 놀람 이후의 이성적 사고에 근거한 질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 이성적 사고의 질문은 전자와 관련한다. 젊은 랍비의 가르침과 지식이 의심할 여지없이 선대 랍비의 가르침으로 교육된다고 보았던 유대인들은<sup>42)</sup>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후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어떻게 혹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할 수 있을 훈련을 받았는가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놀란 이후 제시한 질문의 내용의 배경으로 볼 때 <표 6>에 제시된 질문은 문맥과 조화된다.

앞서 제시된 문맥적 해석은 2.2 단락에서 언급한 바, 분사의 고전적 용법과도에 따른 설명과도 잘 조화된다. 따라서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즉, 모방) 분사의 부정어를 μῆ로 선택한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저자는 고전적 문법 사항을 고려하여 ‘μῆ+분사’ 구문으로 조건절을 나타내려고 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구문을 현행의 양보절(‘않았다면’)로 번역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나 문맥에서 지지 받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2. 요한복음의 전체적 관심: 예수님-하나님-유대인들의 관계

41) 이상일은 ‘말하다’ 동사가 분사 형태로 다른 직설법 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 ‘말하다’ 동사의 분사 형태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글에서 직설법으로 된 주동사와 ‘말하다’ 동사의 분사 형태가 어휘적으로 중복되지 않을 경우(즉, 요 7:15상의 경우[ἐθαύμαζον... λέγοντες]), 두 동사의 의미가 그래도 보존되어야 함을 지적한다(이상일, “‘말하다’ 동사의 분사형의 한국어 번역에 대하여”, 『신약연구』 9:3 [2010], 526). 이러한 사실은 이 두 동사의 행위가 적어도 하나가 아님을 지지한다.

42) 참조. D. L. Bock, *Jesus according to Scripture*, 467; R. E. Brown, 『앵커바이블 요한복음 I』, 715-16; D. A. Carson, *The Gospel*, 312.

위 단락들에서(2.2와 3.1) 필자는 분사구 μή μεμαθηκώς를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 조건절로 봐야 한다고 논증했다. 이러한 해석의 잠정적 결론은 예수께서는 의문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며 독특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sup>43)</sup> 즉, 그것은 예수께서 모든 일에 있어 스스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에게 호소하고 있는 점으로 부각된다.<sup>44)</sup> 이러한 호소는 예수와 유대인들 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sup>45)</sup> 이런 대화 가운데 예수의 논지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드러냈다.<sup>46)</sup> 이는 전통적 요한 신학의 기독교론적 범주에서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신의 아들-인자의 표현으로 제시되고, 최근에 D. A. 카슨(D. A. Carson)은 예수의 이러한 역할을 구약의 선지적 전통의 표현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sup>47)</sup> 예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러한 방식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부각한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7:15 이하의 질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문맥을 보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인들의 부정적 반응과 더불어,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 사항과 요한복음 전체의 관심인 예수-하나님-유대인의 이 삼중 관계의 긴장은 요한의 고유한 관심과 일치한다.<sup>48)</sup> 따라서 요한복음 7:15는 그러한 관계-대치의 문맥에서 읽혀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위의 특징은 요한복음의 또 다른 관계적 특징, 즉 예수-하나님-제자의 친밀함이라는 주제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지지된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43) C. Westermann, *The Gospel of John in the Light of the Old Testament*, S. S. Schatzmann, tran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8), 26. 필자는 베스터만(Westermann)의 편집 비평적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해당 부분의 요점에 대해 그가 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조. S. K. Ray, *St. John's Gospel: A Bible Study Guides and Commentary*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02), 177.

44) D. L. Bock, *Jesus*, 456-57.

45) 참조. R. E. Brown, *The Gospel*, 315.

46) 참조. C. K. Barrett, *The Gospel*, 317-18.

47) D. A. Carson, *The Gospel*, 31. 참조. C. Westermann, *The Gospel*, 55; J. Ashton, *Understanding the Fourth Gospel*, 2<sup>nd</sup>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36.

48) 혹자는 이러한 관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원의 주제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다. 그 말은 맞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문단을 포함하여 요한복음 전반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인들에 대해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가 독특함을 예수가 스스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진술한다. 따라서 위의 본문 역시 예수님-하나님-유대인의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의 어떠한 요소(예. 가르침, 초자연적 능력 등)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논쟁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필자는 이러한 관점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꼭 배타적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복음서들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에 공통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강조점이 요한의 관심도를 드러내 준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께서 제자들이나 함께하는 자들과의 대화에서 보이는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요한의 독특한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요한복음 7:15의 한 분사구(‘배우지 아니하였거늘’)의 번역과 해석 문제를 다뤘다. 필자의 논점은 현행의 번역본들처럼 이 분사구가 양보절로 해석된다면, 본문 문맥의 흐름상 대화의 요점이 맞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이 본문이 전하지 않는 내용을 편입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법적 차원인지 혹은 (우연의 일치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분사구가 부정이 될 때 고전 헬라어 문법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는다. 물론, 이 말은 요한복음이 고전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약 성경 기록시기에 **아티시즘**을 제외한 일반 헬라어 구문에서 이러한 용법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필자는 이러한 표현을 문체적 차원에서 다뤘다. 그리고 그런 유사한 예들을 요한복음 몇 군데서 발견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양보절 등으로 해석함은 요한복음 7:15가 포함된 문단이 근접 문맥적으로나 저자 요한의 관점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으나 조건절로 해석될 때 전체적인 문맥에도 조화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증들에 근거하여 필자는 요한복음 7:15의 부정된 분사구가 조건절도 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이 분사구가 포함된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숙의적 의문문으로 번역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주요어>(Keywords)

요한복음 7:15, 분사구의 부사적 용법, 부정어, 국역성경, 번역.

John 7:15, Adverbial Usage of the Participle, Negation, Korean Bible Versions, Translation.

(투고 일자: 2014년 2월 12일, 심사 일자: 2014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3월 31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주한, “신약 성경 헬라어의 약사”, 구자용 외 편, 『성서의 세계』, 군포: 아람성경원어 연구원, 2012, 338-360.
- 유은걸, “국역성서 헬라어 분사 구문 처리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25 (2009.10), 96-110.
- 이상일, “‘말하다’ 동사의 분사형의 한국어 번역에 대하여”, 『신약연구』 9:3 (2010), 517-539.
- Ashton, J., *Understanding the Fourth Gospel*,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Barrett, C. K., *The Gospel according St. John: An Introduction with Commentary and Notes on the Greek Text*, 2nd ed., London: SPCK, 1978.
- Beale, G. K., “Solecisms in the Apocalypse as Signals for the Presence of Old Testament Allusions: A Selective Analysis of Revelation 1-22”, C. A. Evans and J. A. Sanders, eds., *Early Christian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s of Israel: Investigations and Proposal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421-446.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9.
- Beasley-Murray, G. R., 『요한복음』,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01.
- Blass F. and Debrunner, A.,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 W. Funk ed., and tran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ock, D. L., *Jesus according to Scripture Restoring the Portrait from the Gospel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1966.
- Brown, R. E., 『앵커바이블 요한복음 I: 표적의 책』, 최홍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 Browning, R., *Medieval and Modern Greek*,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1969.
- Caragounis, C. C.,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Morphology, Syntax, Phonology, and Textual Transmiss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 Carson, D. 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1.
- Etes, D., *The Questions of Jesus in John: Logic, Rhetoric and Persuasive Discourse*, Leiden; Boston: Brill, 2013.
- Haenchen, E., *John 1*, R. W. Funk trans., vol.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Köstenberger, A. J., *Joh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 Kraus, T. J., “John 7:15B: ‘Knowing Letters’ and (Il)literacy”, T. J. Kraus ed., *Ad Fontes: Original Manuscripts and their Significance for Studying Early Christianity-Selected Essays*, Leiden; Boston: Brill, 2007, 171-183.
- Morris, L.,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92.
- Moule, C. F. D.,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Moulton J. H. and Turner, N.,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Syntax*, vol. 3, Edinburgh: T. & T. Clark, 1963.
- Painter, J., *The Quest for the Messiah: The History, Literature and Theology of the Johannine Community*, 2nd ed.,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 Ray, S. K., *St. John’s Gospel: A Bible Study Guides and Commentary*,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02.
- Ridderbos, H., *The Gospel of John: A Theological Commentary*, J. Vriend trans., Grand Rapids: B. Eerdmans Publishing, 1997.
- Schlatter, A., *Der Evangelist Johannes- Wie Er Spricht, Denkt und Glaubte: Ein Kommentar zum Vierten Evangelium*, dritte Aufl., Stuttgart: Calwer Verlag, 1960.
- Smyth H. W. and Messing, G. M.,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Westermann, C., *The Gospel of John in the Light of the Old Testament*, S. S. Schatzmann, tran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8.
- Zerwick, M., *Biblical Greek illustrated by Examples*, J. Smith, trans.,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94.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판: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Abstract>

**A New Understanding of the Participial Phrase, μὴ μεμαθηκώς,  
in John 7:15**

Dr. Joohan Kim  
(Chongshin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try to suggest a new (Korea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a participial phrase, μὴ μεμαθηκώς, in John 7:15. In Korean Bible versions, the participial phrase, μὴ μεμαθηκώς, is rendered as if it is a concessive clause. And based on this translation, many preachers and students have cited this phrase as the verse evidencing Jesus' omniscency on earth. However, John 7:15 and its context neither talks about his omniscency, nor is the participial phrase translated to connote concession. In fact, John 7:15 is in a context of an issue of Jesus' teacher, and the participial phrase should be understood in a conditional sense. Particularly, the writer of the Gospel of John is likely to have followed (or imitated) the classical usage of the negation of (adverbial) participle, i.e. μὴ +participle (implying condition) and οὐ+participle (implying the rest of the adverbial clause), which is supported by other examples in the Gospel of John (e.g. Joh. 10:12; 12:48; 15:2). In addition, when we consider Jesus' reply in verse 16 ("My teaching is not mine but his who sent me" NRSJ), which informs who Jesus' teacher is, but not his education level, the question of Jews in verse 15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same line as the reply, i.e. an issue of Jesus' teacher. As the result, while the participial phrase negated with μὴ in verse 16 should be rendered in the conditional sense, the πῶς question has to be understood as a deliberative question.